

광양시 낭만의 '별헤는 밤'... 겨울여행 떠나요

코로나 시대 겨울방학 겨냥
동선·안전 고려 이색체험 마련
반일·당일·1박2일 3개 코스

광양시가 경험이 삶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 시대 겨울방학을 겨냥한 1월 광양여행코스를 내놴다.

시는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 동선과 소요시간을 고려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면서도 이색적인 체험이 풍성한 3가지 코스를 선보였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반나절'은 광양부영국제빙상장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즐거운 미식 ▶전남도립미술관 ▶멀티플렉스 LF스퀘어 코스로 문화예술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양부영국제빙상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전남 최대 사계절 실내아이스링크다.

하루코스인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는 춥고 매마른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휴식을 컨셉으로 전남도립미술



봉강 하조마을에 있는 해달별천문대의 플라네타륨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광양예술창고 ▶광양불고기 또는 광양닭숯불구이 ▶백운산자연휴양림 체험장 ▶하조나라 체험 코스다. 코로나 시대 방역 우수관광지로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주는 힐링 공간으로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를 연상시키는 북카페 하조나라에서는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와 독서를 즐기거나 직접 도우를 만들고 베이컨, 피망, 올리브 등 원하는 재료로 토핑을 하는

등 자기만의 화덕피자를 만들어 먹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광양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광양에서 별 헤는 밤'은 1박 2일 코스로 장도, 공시 등 장인정신이 흐르는 다채로운 체험과 매천 황현, 운동주 등 역사적인 인물과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유익한 코스다.

시는 첫날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 ▶광양불고기특화거리(중식) ▶광양장도박물관 ▶광양공시전시교육관 ▶매천황현생가 ▶하조나라 ▶해달별천문대 코스를 통해 광양의 별 헤

는 밤을 선사한다.

둘째 날은 구봉산전망대~김시식지~망덕포구먹거리타운(중식)~운동주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운동주 시 정원~배알도 섬 정원으로 1박 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홈페이지 추천여행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1월 추천코스는 스케이트, 장도, 공시, 천문대 등 웅크리기 쉬운 겨울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미술관 관람, 시 정원 등 상상과 정서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해 동적인 요소와 균형을 맞추어 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계절별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마실 거든 떠나는 반나절 코스부터 구석구석 즐기며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까지 소요시간, 동선 등을 고려해 매달 3가지 여행코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aaceo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영양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4,866농가에서 임대료 1억1000만원 중 5500만원의 혜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기종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연장운영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양시, 청년행정인턴 모집 총 43명... 만 18~39세 대상

광양시는 오는 14일까지 '2022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43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대학생이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1월 24일~2월 18일(4주간)이며, 시는 오는 1월 19일 공개 추첨을 통해 동계 행정인턴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또는 광양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담양군 담빛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담양군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빛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습지원(국어·영어·수학)과 전문체험(미술·악기연주·보드게임), 역량개발(과학탐구·진로체험·동아리 활동), 주말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매주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모집 정원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전남)=최영상 기자 dudtkd2343@

영암군,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 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도에서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한 월 3만원씩 지급함은 물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전몰군경유족과 순직군경유족에게도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유공자 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72% “전남에 거주하고파” 도민 삶 만족도 소폭 상승

전남도, 2021 사회조사 결과 공표
삶 만족도 8점 이상 비중 0.9%p ↑

전남도는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등을 파악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지역 만 15세 이상 1만 9116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 보건·의료, 노동, 안전 등 12개 분야 30개 문항이다.

도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 비중이 전년보다 0.9%p 상승한 31.5%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체 설문 가구의 72.5%가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사는 지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의료기관은 2844개소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의료인력도 전년보다 0.2% 늘었다.

전남도민의 하루 흡연량은 14.3개비로 전년보다 2.7%(0.4개비) 감소했다. 과거 흡연자였으나,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자는 21.1%로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선 일자리에 대해 '만족' 30.1%, '보통' 56.4%, '불만족'은 13.5%로, 하는 일에 대한 '만족' 31.5%, '보통' 53.7%, '불만족' 14.7%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밖에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한 '안전하다' 48.6%, '보통이다' 37.5%, '불안하다' 13.9%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개장식에서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 특산품·공예품 판매장 오픈

'다향아트밸리' 문열어

보성군의 '다향아트밸리' 개장했다. 지난 3일 개장 커팅식을 시작으로 보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보성차와 공예품을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성 담방이를 비롯한 차사발과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예술 공간으로 불거리 제공은 물론 주말에는 무료 시음회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다향아트밸리는 이색 먹거리 '보성삼합'을 주력 먹거리 상품으로 내

놴다.

판매전시동 1층에서 보성에서 키운 녹차떡인 돼지(녹돈)를 구입하면 2층에서 보성 특산품인 쪽파와 감자를 곁들여 구워먹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발골한 녹돈과 신선한 재료와 제철 식재료로 만든 식단으로 운영된다.

문화 체험동은 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페와 숯불에 구운 '녹돈 갈비' 식당, 녹차 뷰티 테라피 발마사지, 쪽파 김치 체험과 구매가 가능하다.

/보성(전남)=문상현 기자 m8527188@

구례군, 2050 탄소중립 적극 추진

이달 중 '탄소제로' 비전선포 예정

구례군이 2050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3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탄소ZERO 청정구례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 등 빈틈없는 군정활동을 지시했다.

구례군은 탄소ZERO의 첫걸음을 위해 1월 중 탄소ZERO 비전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포식에서는 앞으로의 기후 전망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설명을 통해 앞

으로 구례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구례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승용 화물자동차 보급, 저녹스 보일러 보급,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보상 등 202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은 자리산과 섬진강의 청정 이미지와 함께 탄소ZERO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구례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곡성군 김영성씨, 무형문화재 인정받아

곡성군 목사동면 출신 김영성 씨가 지난 12월 30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1호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대목장은 궁궐이나 사찰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건축일을 하는 목수를 지칭한다.

김영성 대목장은 1957년 곡성군 목사동면에서 태어났다. 그는故 고택영(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선생의 제자로 곡성 관음사, 완주 화암사, 전

주 객사, 연기 보림사, 용인 법륜사 등 많은 곳에서 전통 건축물 보수와 신축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 대한민국 한옥 건축대상을 수상한 한옥 펜션 '두가현(곡성군 고달면 소재)'은 김 대목장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현재 최원식-조원재-고택영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건축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